헨릭 뵘스코브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 인스톨레이션의 표현 특성

고 현 진

건국대학교 의상 디자인학과 부교수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Fashion Installation in Henrik Vibskov Collection

Hyunzin Ko

Associate Professor,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received date: 2015. 7. 28, revised date: 2015. 8. 6, accepted date: 2015. 8. 10)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reative fashion installation of *Henrik Vibskov*, Danish designer. Its intention is to contribute useful information for more innovative fashion presentation. As a research method, document and case study were performed and his collections from 2004 F/W to 2016 S/S were analyzed. In fashion installation, the designer puts objects in meaningful spaces in order to convey a certain message, to make an integrated artwork, and to interact with spectator. It has been used in fashion exhibitions, as well as in the set design of fashion performance and fashion show. The results were as follows. *Henrik Vibskov's* fashion installation has three features, which are 1) conceptual theme approach that communicates a twisted and metaphoric message, with a poetic and interesting show title, 2) surrealistic scenography that plays with fragmentation of the human body, clustering of plastic and symbolic objects, innovative color transformations, and visual trickery between figures and the background, and 3) setting for multisensory performance that makes spectators interact by making artistic objects and surroundings, which stimulates the five senses. *Henrik Vibskov's* fashion installation can exist as an independent artwork, and not just as a supporting piece for a fashion show. It has both artistic and fashionable values, and can be an effective fashion presentation communicating his conceptual fashion themes.

Key words: conceptual theme(개념적 주제), fashion installation(패션 인스톨레이션),
Henrik Vibskov(헨릭 뵘스코브), multisensory performance(다감각의 퍼포먼스),
surrealistic scenography(초현실주의적 무대설치)

I. 서론

최근 친환경, 글로벌 환경의 관점에서 북유럽 디자인과 패션이 이슈화되고 있다. 2013년 F/W 런던 패션 위크에서 스칸디나비아 패션 전시가 있었으며, 실시간으로 패션 컬렉션을 보도하는 대표 사이트인 스타일 닷 컴(www.style.com)에서도 최근 북유럽 국가의 패션 위크 일부를 다루어주고 있다. 헨릭 뵘스코브(Henrik Vibskov)는 파리 남성복 패션 위크에서 지속적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보이는 유일한 스칸디나비아 디자이너이다. 그는 패션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인스톨레이션(installation),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디자이너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를 반영한 그의 패션 프레젠테이션은 다양한 예술 장르가 혼합된 하이브리드이다. 특히 패션쇼에서의 독특하고 스펙터클한 인스톨레이션이 특징이며 이러한 이유로 그의 컬렉션은 아방가르드한 패션 뿐 아니라 무대 세트 디자인에 있어서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해왔다. 쇼 이외에도 다양한 창작 및 전시 활동을 왕성하게 보이고 있어 그의 패션 인스톨레이션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시되고 있으며, 2015년 7월~12월까지 한국 대림 미술관에서 최초 아시아 기획 전시 'Henrik Vibskov - Fabricate'도 진행 중이다.

패션 인스톨레이션은 패션과 예술의 접점에서 수행되는 예술적 표현 형식으로 갤러리, 미술관에서부터 스토어, 쇼 윈도우 같은 실내 공간, 넓게는 일상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창작 영역을 보다 넓혀주는 프레젠테이션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헨릭 뵘스코브의 실험적 인스톨레이션은 패션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미술 전시회, 혹은 전시 프로젝트를 통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헨릭 뵘스코브 컬렉션에 나타난 독특한 패션 인스톨레이션의 표현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그의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인스톨레이션 분석을 통해 보다 확장된 패션 프레젠테이션 표현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제까지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되는 패션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패션 인스톨레이션에

집중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논제를 제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세계 4대 컬렉션에 속하지 않아 메이저 급 패션 컬렉션이라 할 수는 없지만 최근 디자인 업계에 있어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관점의 패션 해석을 보이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이너 작업의 표현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북유럽 패션 디자인에 대한 분석에 부분적으로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헨릭 뵘스코브 관련 단행본, 홈페이지, 인터넷 기사 등과 미술 및 패션 프레젠테이션, 인스톨레이션에 관한 선행연구, 관련 서적 등을 통해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의 패션쇼에 나타난 인스톨레이션의 표현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서는 파리 남성복 컬렉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4년 F/W 컬렉션에서부터 2016년 S/S 컬렉션까지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고 사진 자료는 헨릭 뵘스코브의 홈페이지, 전문서적, 전시 카탈로그, 포스트 뷰 코리아 닷 컴(www.firstviewkorea.com)을 참조하였다.

II. 패션 인스톨레이션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패션 인스톨레이션의 개념

1) 인스톨레이션의 일반적 정의

인스톨레이션은 인스톨레이션 아트(installation art), 설치미술이라고도 불리며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회화, 조각, 영상 등의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해 표현된 작품을 특정한 장소나 전시 공간에, 작가의 의도에 따라 의미 있게 배치하여 전시하는 현대 미술의 표현 장르이다(Wikipedia, n.d.; World Art Dictionary, n.d.).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달하였는데, 박물관과 미술관이 주도가 되어 2차원 회화, 3차원의 조각, 입체작품을 미술 제도권 내에서 단순하게 전시하던 기존 작업과는 달리, 이는 다양한 소재의 작품을 미술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일상 공간, 넓게는 자연에 이르기까지 확장된 공간에 설치하는 현장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인스톨레이션은 오브제, 공간, 행위 등의 미술에서의 경계 확장에 따라 형성된 장르이며, 작가는 창작 의도를 갖고 공간을 구성하여 전시 공간을 총체적으로 작품화하는데, 오브제를 자유로이 공간에 맞추어 배치하거나, 동영상상을 상영하기도 하며, 감상자는 그러한 공간을 오감을 갖고 체험, 상호작용하게 된다(Wikipedia, n.d.). 이러한 인스톨레이션의 시작은 쿠르트 슈비터즈(Kurt Schwitters)의 '메르츠(Merz)'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후 팝아트, 미니멀리즘, 포스트 미니멀리즘의 설치, 해프닝, 퍼포먼스를 위한 세트, 대지미술, 이후 미디어 아트에서의 설치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 공간, 표현방식을 보이며 발달했다.

인스톨레이션은 고정된 방식으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되는 공간에서 조형과 공간을 직접 연출하여 만들어어나가는 종합적 조형이며 관람자와의 소통과 상호작용까지 포함시킨 개념이다(Cho, 1993). 따라서 인스톨레이션은 공간, 관객에 따라 매번 다른 의미와 조형을 생성할 수 있는 가변성, 장소성(site-specificity), 일회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인스톨레이션이 일상의 오브제나 공간을 구성요소로 사용함으로써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게 됨에 따라,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 디자인, 실내 디자인, 패션 디자인 등 타 예술분야에까지 폭넓게 적용되었다.

실내 디자인, 공간 디자인에 있어 인스톨레이션은 현대인의 삶의 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 자신이 속해 있는 공간의 심미화와 고급화를 추구하는 경향에 부합되기에 활용되고 있으며(Lee, 2010) 패션 디자인이나 패션 관련 상업 공간 디자인에 있어서도 유사한 맥락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패션 인스톨레이션은 설치 미술에서 유래하였으며, 패션 디자인, 패션 관련 상업 공간의 맥락에서 오브제, 장소, 관람자와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설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패션 인스톨레이션의 전개

인스톨레이션과 의상과의 접점은 1960년대 말 인스톨레이션 아트에 의상이 차용되면서부터이며 이후

페미니즘 작가들의 작업에 의해 더욱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여러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인간의 몸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의상인 것에 기인했다(Kang, 2011). 설치작가들은 의상을 오브제로 사용하거나 다른 재료로 의상 오브제를 만들었다. 또, 의상 디자이너와 공동 설치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 말 이후 화가들의 의상 설치작업의 흐름이 있었던 반면 1970년대 들어 의상디자이너들이 예술성을 강조한 의상을 제작하고 1980년대 예술의상(Art to Wear)이 활발하게 전시되면서 의상 디자이너들의 설치 작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이러한 예술 의상에 관심을 갖고 작품 활동을 진행하는 예술 의상 디자이너들, 실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예술적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단순한 전시를 넘어선 설치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패션 인스톨레이션은 특정 공간 안에서 패션을 주제로 공간, 오브제, 메시지를 하나의 조화로운 통합체로 구성하고 스토리를 구축하는 작업이며 전개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과 패션의 교집합의 위치에서 1)예술가들의 의상 관련 설치 작업 2)패션 디자이너들의 설치미술적 작업 3)예술가와 패션 디자이너들의 협업에 의한 설치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표현해보면 <Fig. 1>과 같다. 이러한 패션 인스톨레이션은 표현되는 공간, 매체에 따라 다양한 작업으로 나타나며 그로 인해 작가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람자들과 소통하는 예술적인 패션 프레젠테이션 방식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Fig. 1> The Concept of Fashion Installation
(Diagram by researcher)

2. 패션 인스톨레이션의 유형

1) 설치 공간에 따른 유형 분류

Ko & Ee(2011), Cho(1993)에 의하면 인스톨레이션의 경우 장소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설치작업의 유형은 예술 작품이 놓이는 입지의 공간에 따라 분류되곤 한다.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은 미술 제도권 내에 있는 갤러리, 미술관, 그리고 일상의 삶 속 예술작품이 설치될 수 있는 실내 전시 공간과 더 나아가 도시 환경, 자연 환경 속의 실외 전시 공간으로 나뉜다. 공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이 예술적 표현이 가능하고 답론을 이끌 수 있는 공간이 선정된다.

패션 인스톨레이션의 경우 실내 전시 공간에 있어서는 미술관, 갤러리와 같은 미술 공간, 그리고 패션이 유통되는 백화점, 스토어 등의 패션관련 상업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실외 전시 공간에 있어서는 도시, 자연 환경 속 공간 등으로 확장되어 설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설치작업의 예술적 특성상 상업 공간의 경우 플래그십(flagship) 스토어, 패션 브랜드의 뮤지엄 등과 같이 미적 실험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려는 패션 관련 공간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공간에서 놓이는 인스톨레이션 작품의 경우 주로 오브제라는 통칭으로 불리며 다양한 소재, 매체의 조형물에서부터 디지털 기술의 발달 이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미디어 아트의 영상 이미지, 빛, 레이저 등에 이르기까지 물질과 비물질적 아우른다. 미디어 오브제의 경우 관람자를 가상공간으로 유도하여 실재와 가상을 함께 체험하게 만들기도 한다. 오브제와 공간의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 속에 관객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작가가 부여한 작업의 의미를 사유하고 경험하게 된다. 패션 인스톨레이션의 경우도 다양한 예술적 형식의 조형물, 패션 조형물, 영상, 빛 등의 오브제가 특정 공간에 설치되면서 의미가 소통된다.

2) 패션 프레젠테이션에 따른 유형 분류

패션 프레젠테이션은 패션쇼, 퍼포먼스, 무대 연출,

영상, 전시 등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가 디자인을 제시, 발표하는 다양한 방식이다(Huh, 2011). 인스톨레이션 아트의 경우 궁극적으로 전시, 퍼포먼스의 배경설치를 통해 창작 활동이 선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패션 인스톨레이션의 경우에도 전시, 패션쇼와 패션 퍼포먼스에서의 무대 연출이라는 패션 프레젠테이션의 하나로써 발표된다. 최근 예술과 패션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패션 소품, 예술적 오브제를 이용한 패션 전시, 패션쇼 등에서의 설치작업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패션 이벤트 공간을 작품화시키는 방법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Yang & Lee, 2013).

(1) 전시 설치 작업

“21세기 패션 전시는 다양한 디자인 언어를 사용하며 오브제를 고정된 상태로 배치하는 원시적인 형태의 전시를 벗어나 여러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Jang & Yang, 2011, p.1308) 보다 창의적인 설치 작업들이 많이 존재한다. 패션 전시는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디자이너의 디자인 철학, 예술성, 작품성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므로 예술적 디자이너들에게 있어 종종 인스톨레이션 방식으로 표현된다. 전시를 위한 패션 인스톨레이션의 경우 첫째, 갤러리나 뮤지엄 같은 미술 공간에서 의상과 연계된 예술가들의 설치작업, 디자이너들의 예술 의상 설치작업, 설치미술적 작업 그리고 예술가와 의상 디자이너와의 협업에 의한 설치 작업 등이 있다.

〈Fig. 2〉는 런던 하우저 앤 워스(Hauser & Wirth) 갤러리에서의 페미니스트 예술가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의 작품으로 살색 쉬폰을 이용한 설치 작업이며, 흰 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화이트로 모든 오브제에 색을 입힌 〈Fig. 3〉은 2010년 서머셋 하우스(Somerset House)에서 마르지엘라(Margiela)의 20주년 기념 전시회의 인스톨레이션이다. 패션과 아트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Britain Creates 2012’ 전시에서의 디자이너 피터 필로토(Peter Pilotto)와 아티스트 프란시스 우프릿차드(Francis Upritchard)의 공동작업 ‘Arch’〈Fig. 4〉와 2015년 DDP에서 진행 중인 ‘Esprit Dior’ 전시의 서도호의 인스톨레이션 〈Fig. 5〉는 패션 디자이너 혹은 패션 브랜드와 예술

〈Fig. 2〉 Louise Bourgeois's installation, (Hauser & Wirth, 2010)

〈Fig. 3〉 20th celebrating anniversary installation, (Maison Margiela, 2010)

〈Fig. 4〉 Pilotto & Upritchard collaboration (Britain Creates, 2012)

〈Fig. 5〉 Dior & Seo, Doho collaboration (researcher's photo, 2015)

〈Fig. 6〉 'Eyes see you', (Wolff, 2006)

〈Fig. 7〉 Prada flagship store, (James Jean, 2010)

〈Fig. 8〉 Prada transformer (Smith & Kubler, 2013, p. 167)

〈Fig. 9〉 Prada Marfa (Smith & Kubler, 2013, p. 196)

가의 콜라보레이션 설치 작업의 예들이다.

둘째, 상업적인 패션 유통 공간에서 패션 브랜드의 고급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려는 디자이너의 설치 작업, 디자이너와 예술가의 콜라보 설치 작업 등이 있다. 상업 공간에서의 인스톨레이션은 패션 브랜드 스토어의 실내 공간 디자인과 쇼 윈도우 디스플레이에서 시도되고 있다. 인스톨레이션을 사용한 쇼 윈도우 디스플레이는 단순히 판매를 위한 진열이 아니라 예술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쇼 윈도우 상품도 예술작품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었다(Kim, 2008). 특히 패션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는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현의 장으로 조형적 공간을 연출하는 경향이므로 인스톨레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과의 콜

라보레이션 설치 VMD의 존재 가치에 대해 Kim (2010)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술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적용한 상업공간의 VMD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매장에서 미학적 접근을 통해 강조할 수 있으며 공간과 상품의 예술화를 통한 가치 중심의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감성적 체험을 유도하여 브랜드를 이해시키고 예술의 비현실적이고 이념적인 요소를 통해 유희적이고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가상공간을 형성하여 소비자들에게 일탈의 기분을 제공할 수 있다(p.132).

〈Fig. 6〉은 뉴욕 플래그십 스토어의 루이 비통(Louis Vuitton)과 올퍼 엘리야슨(Olafur Eliasson)의 크리스마스 시즌 쇼 윈도우 콜라보레이션 'Eyes See you'이다. 이는 전 세계 매장에 연출되었는데, 눈동자

처럼 생긴 빛 설치 작품을 통해 쇼 윈도우 바깥에서 있는 소비자는 시선을 교환하는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Fig. 7>은 프라다(Prada)와 LA 출신 일러스트레이터 제임스 진(James Jean)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도쿄 플래그십 스토어의 파사드에 투영된 스크린 설치 작업이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의 건축물은 외벽이 디지털 스크린으로서 관찰자와 상호소통하는 장으로 유도되고 있다(Chae, 2005).

셋째, 환경 미술, 대지 미술의 차원에서 도시, 자연의 공간에서의 설치 작업이 있다. 2008년 프라다의 트랜스포머 프로젝트는 서울 경희궁 안에 육각형, 직사각형, 십자가, 원형의 철제 구조물로 구성된 임시 건축물로 회전을 하며 'Waist Down' 패션 전시, 영화 상영, 아트 전시, 학생들 워크숍과 같은 4가지 행사를 진행했다(Fig. 8). <Fig. 9>의 프라다 마파(Prada Marfa)는 프라다와 아티스트 엘름그린(Elmgreen)과 드래그셋(Dragset)과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는데 마파라는 텍사스 사막에 위치한 작은 도시 근처에 설치된 인스톨레이션이다. 실제 판매하지는 않는 프라다 제품을 진열한 상점으로 소비주의에 대한 풍자로 의미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실외 공간의 설치 작업은 자연환경 속에서 관람자들이 체험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2) 패션쇼와 패션 퍼포먼스 세트 설치 작업

최근 패션쇼에서는 조형적인 오브제를 사용한 설치미술적 무대와 연극적 퍼포먼스가 종종 나타난다

(Hwang, 2008). 단순히 자신의 작업을 대중에게 발표하는 패션쇼보다 "여러 실험적인 조형 요소의 접목을 통하여 이색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패션쇼의 발전은 패션 디자이너의 예술적 감성 및 철학이 투영된 하나의 기호로 작용하게 되어"(Kim & Kim, 2013, p.810) 예술성을 강조하는 디자이너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패션쇼나 퍼포먼스의 무대 세트의 경우도 패션 전시와 마찬가지로 미술 공간, 패션 관련 공간, 실외 공간에 오브제를 위치시키는 인스톨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샤넬(Chanel) 등 볼거리를 제공하는 패션쇼를 통해 무대 세트 디자인에 인스톨레이션이 적용되고 있다.

알렉산더 맥퀸의 2006년 F/W 컬렉션의 <Fig. 10>은 패션쇼를 위한 연출로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인스톨레이션이라 할 수 있다. 홀로그램은 공간 제한 없이 영상이 표현되는 장점이 있어(Hong & Kim, 2014) 모델, 관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디지털 패션 인스톨레이션에 활용된다. 이러한 디지털 패션 인스톨레이션은 2008년 S/S 디젤(Diesel) 패션쇼 <Fig. 11>에서도 나타났다. 2014년 S/S 샤넬 컬렉션 <Fig. 12>는 전시 공간이자 패션쇼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그랑 팔레(Grand Palais)에서 발표되었는데, 패션쇼 무대를 마치 거대한 갤러리로 표현하고 그 안에 샤넬 로고, 체인, 동백꽃, 향수 No.5 등 샤넬의 아이콘들을 활용한 회화, 조각, 각종 설치 작품들을 무대 세트 요소로 활용하여 스펙터클 쇼를 창조해냈다.

<Fig. 10> Alexander McQueen 2006/2007 F/W (Firstview Korea, n.d.-a)

<Fig. 11> Diesel 2008 S/S (Holographic Diesel, 2007)

<Fig. 12> Chanel, 2014 S/S (Firstview Korea, n.d.-b)

<Fig. 13> Chanel, 2014 F/W (Firstview Korea, n.d.-c)

2014년 F/W 컬렉션에서는 그랑 팔레를 거대한 슈퍼마켓으로 만들고 그 안에 샤넬 로고를 가진 제품들을 설치하였다(Fig. 13).

III. 헨릭 뵘스코브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 인스톨레이션 분석

1. 헨릭 뵘스코브의 컬렉션 고찰

헨릭 뵘스코브는 1972년 덴마크 출신 디자이너로 2001년 세인트 마틴 졸업이후 자신의 이름으로 남성복 컬렉션을 발표했고 2003년 1월 이래로 파리 남성복 패션위크의 공식적 쇼 스케줄에 있는 유일한 스칸디나비아 디자이너이며 그의 작품은 다양한 미디어에서 21세기 '새로운 북유럽의 움직임의 일부'이며 유희적 패션 감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Wikipedia, n.d.).

1) 헨릭 뵘스코브 디자인 특성

헨릭 뵘스코브의 패션쇼는 충격을 주는 아방가르드한 쇼이지만 그의 디자인은 실용적이고 상업적인 디자인이면서도 놀라운 수공예 디테일을 보여주는 것이다(Wikipedia, n.d.). 그의 디자인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특징인 실용주의를 반영하며, 북유럽의 생동감 있는 컬러 감성, 수공예적 표현을 갖고 있지만 그만의 재미있고 상상력이 풍부한 실험적인 형태와 비례감, 그래픽이 강한 프린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Fig. 14).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헨릭 뵘스코

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디자인은 색상 면에서 콤테가르송(Comme des Garçons)과 폴 스미스(Paul Smith), 이케아(Ikea)나 리바이스(Levi's)의 실용주의 디자인, 버나드 윌렘(Bernhard Wilhelm)의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이상한 아방가르드 디자인, 새빌로우(Savile Row)의 클래식 테일러링 테크닉, 패턴 커팅 정도이며 나는 이 사각형의 중간정도이다.”(Nnadi, Sept 18, 2009)

구체적으로 스타일을 살펴보면 클래식 테일러링과 캐주얼 스타일링을 바탕으로 하며 밀위가 긴 편안한 바지와 레깅스, 오버사이즈 수트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진동하는 대담한 컬러 조합, 생동감 있는 컬러 블로킹을 사용하며, 재미있는 아이디어의 그래픽 프린트, 비디오 게임의 영향을 받은 프린트로부터, 스트라이프, 도트 등의 기하학적 프린트, 민속적인 아즈텍 프린트까지 다양한 패턴의 프린트를 통해 뵘스코브 디자인 특유의 재미를 더한다. 이와 더불어 얼굴을 변형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헤드피스나 안경 등을 사용하여 다다의 장난치는 감성(The Multi-tasker, Sept 5, 2011)을 보여준다. 특히 그의 디자인 스타일링에 있어 헤드피스는 전체 미학의 일부로서(Olivier, 2012) 중요하며 쇼의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그는 자신의 일상 경험에서 영감을 받되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중적 해석이 가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컬렉션을 발표한다.

〈Fig. 14〉 Henrik Vibskov's characteristic design, 11 F/W, 15 S/S, 14 F/W, 09 F/W
(Firstview Korea, n.d.-d)

2) 헨릭 뵘스코브 패션 프레젠테이션 특성

헨릭 뵘스코브의 프레젠테이션 창작영역은 자신의 컬렉션 뿐 아니라 드럼 연주, 뮤직 페스티벌 등과 같은 음악 분야, 각종 공연, 무대의상, 무대 설치 디자인과 같은 공연 분야, 퍼포먼스, 인스톨레이션 아트 전시와 같은 미술 분야 등 의상디자인의 영역을 넘어 음악, 공연, 미술의 다양한 예술 장르에까지 확장되어 있다. 그는 덴마크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엑스포, 광주 비엔날레, 아이슬란드, 베이징 축제, 뉴욕 모마 전시 등 국제적인 창작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일회적이지 않은 시리즈 프로젝트 같은 형식의 작업들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전시작업은 갤러리, 미술관의 설치에서부터 대지미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의상과의 접점을 이룬 것들과 아트웍까지 다양하다. 그의 인스톨레이션 작업이 설치되는 공간 역시 미술 공간, 패션 매장과 같은 상업 공간, 학교마당에서 공원에 이르는 일상 공간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전시 설치 작업들은 그가 진행하는 패션 컬렉션에 바탕이 되는 밑 작업이 되기도 한다. 또, 인스톨레이션과 동시에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되기도 한다. 로테르담의 네덜란드 건축 인스티튜트(NAL)의 ‘바디 빌딩 전시(Body Building Exhibition, 2010)’(Fig. 15)는 거대한 붉은색 인체 혈액 세포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을 창조하는 것이 아이디어라고 하며, 이를 위해 그는 진동하는 5가지 레드 톤의 삼각형으로 인플래터블(inflatable) 구조물을 만들고 퍼포먼스 댄서들의 의상을 제작했다(Vibskov & Wiper, 2012).

프린지 프로젝트(Fringe Project)와 원형 시리즈(The Circular Series)는 세인트 마틴 시절 친구 안드레아스 이메니우스(Andreas Emenius)와 함께하는 두 개의 시리즈 예술 프로젝트이다. 프린지 프로젝트는 모든 종류의 그래픽을 프린지로 만들고 기계적 설치를 하는 것이며 원형 시리즈는 원형의 형태에 기초하여 하나의 물건 혹은 시각 아이덴티티, 랜드스케이프를 제작하는 것이다(Vibskov & Wiper, 2012). 이 두 작업은 두 작가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참여하는 패션 퍼포먼스(Fig. 16), 패션 인스톨레이션, 인스톨레이션 아트, 혹은 이들의 조합 등 다양하다.

그밖에도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미켈 헤스(Mikkel Hess)와 함께 금요일 오후 6시에 만나 SMS를 통해 수요가 있는 장소에서 패브릭을 뒤집어쓰고 드럼 퍼포먼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일본 만화 오페라 (Manga opera) ‘War Sum Up’의 무대 의상, 무대 조명 디자인을 담당하기도 하였다(Fig. 17). 테이즈드(Dazed)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예술과 패션 간의 경계에 대한 질문에 “나는 두 분야를 오고 가는데 꽤 자유로운 느낌이다. 나는 새로운 재료, 구조, 그리고 세팅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창조적인 사람이다(Prior, 2013).”라고 대답할 정도로 예술과 패션 간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이다. 즉, 그의 작업은 최근 패션이 회화, 음악, 영화 등의 타 예술분야, 테크놀로지 분야와 상호 관계를 맺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상호텍스트적 경향(Kim, 2004)을 잘 보여준다.

동일한 맥락에서 그의 패션쇼는 이러한 확장된 예

〈Fig. 15〉 Body Building installation & performance (Vibskov & Wiper, 2012, p. 28, Tan, 2011)

〈Fig. 16〉 Fringe project 6, (Vibskov & Wiper, 2012, p. 31, Tan, 2011)

〈Fig. 17〉 War Sum Up (Vibskov & Wiper, 2012, p. 33, Tan, 2011)

술 영역에서의 작업을 반영하여 독특한 무대장치와 음악, 퍼포먼스 즉 다양한 예술 프레젠테이션 장르의 혼합물이다. 그는 패션쇼를 위해 무대 인스톨레이션과 퍼포먼스에 대한 총체적 디자인을 한다. 한 인터뷰에서 디자인에 있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인스톨레이션 쇼를 창조하는 것”(Davis, 2008, p.173)이라고 그가 대답하였듯이 그의 패션쇼에 있어 무대장치는 단순히 패션쇼의 전체 효과를 위한 부가적 보조물이 아니라 일종의 아트 인스톨레이션으로서 패션쇼를 마친 이후에도 따로 초청 전시될 정도로 그의 의상디자인 못지않게 독립적으로 중요하다.

2. 헨릭 뵘스코브 컬렉션의 패션 인스톨레이션 표현특성 분석

헨릭 뵘스코브는 쇼에 있어 의상디자인 뿐 아니라 의상이 제시되는 3차원적인 공간적 특성을 중시하기에 패션쇼의 무대 공간의 조형성에 대해 깊이 사고하고 조형적인 인스톨레이션을 구축한다. 따라서 각 시즌마다 무대 공간에 인스톨레이션 작업을 보이고 있는데 각 컬렉션에서 그는 시적이고 유희적이며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타이틀을 부여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의 패션쇼에 나타난 패션 인스톨레이션 분석 결과 개념적 주제 접근, 초현실적 무대설치, 다감각적 퍼포먼스를 위한 무대설치의 세 가지 표현특성을 갖고 있었다.

1) 개념적 주제 접근

각 컬렉션에서 헨릭 뵘스코브는 시적이고 유희적인 쇼 타이틀과 함께 비틀리고 은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개념적 주제를 선정하여 쇼 관람자에게 다의적 해석을 유도한다. 이러한 개념적 주제는 공상적인 판타지 소설, 영화를 연상시킨다. 한 비평가는 그의 작업을 설명할 때 로알드 달(Roald Dahl)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Charlie’s Chocolate Factory)’을 인용했고 까불고 어린이가 같은 편안함과 공상적이고 무모함과 같은 마법을 공유했다고 평했다(Nnandi, Sept 18, 2009). 특히 헨릭 뵘스코브는 쇼 타이틀을

독특하게 결정한다.

“나는 이상하고 꼬아 생각한(twisted) 컬렉션 제목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팀에서 컬렉션 이름을 짓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영감을 받은 지점에서 시작해서 인스톨레이션 방향도 생각해보고 또 세계 여러 곳에 이메일을 보내 여러 사람들이 2~3주에 걸쳐 참여해서 결정하곤 한다.” (Vibskov & Wiper, 2012, p.206)

2013년 F/W 컬렉션 ‘Stiff Neck Chamber’(Fig. 18)에서 “곧은 목(Stiff necks)은 성경에서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의미하며 옛날 벽돌을 나르는 막노동꾼을 일컫는 말로(Tudor, Jan 17, 2013) 다중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타이틀이며 ‘The Human Laundry Service(2009 F/W)’(Fig. 19)에서는 커다란 인간 햄스터 바퀴를 만들어 모델이 안에서 워킹하게 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인간의 뇌가 거대한 세탁기에서 세탁되고 있음을 다루는 것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얼마나 단순하게 걷고 또 걷고 기계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가 하는 것”(Vibskov & Wiper, 2012, p.199)으로 무대의 거대한 바퀴는 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조형물이었다. ‘The Eat’(2011 F/W) (Fig. 20)에서는 긴 디너 식탁이 설치되고 옆에 놓인 풍선이 부풀기 시작하면 모델들이 레드 아이스 큐브가 담긴 접시를 들고 워킹 후 식탁에 앉은 퍼포먼스를 한다. 뵘스코브에 따르면 이는 디너 장면이 아니라 기계화되고 시스템화된 조직 체제를 말하는 것이며 ‘화씨 451(Fahrenheit 451)’,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The City of Lost Children)’ 등과 같은 영화를 참조로 한 것으로 죄수, 노동자 캠프와 유사한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를 서술한다(Gundoft, 2011: The Multi-tasker, Sept 5, 2011). 또, ‘Solar donkey Experiment (2010 S/S)’는 기계적인 모바일 환경 속에서 아날로그적 소통(analog communication)에 관한 주제로 느낌을 상징하는 당나귀와 같은 아날로그한 소스를 사용했다(Nnandi, Sept 18, 2009). 뵘스코브는 빠른 스피드 하에 통제되고 조직화된 현대 익명 사회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연극적 무대장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컬렉션 주제를 고찰한 바 뵘스코브의 컬렉션은 일상의 아이디어, 현대 사회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하여

〈Fig. 18〉 'Stiff Neck Chamber'
(Firstview Korea, n.d.-e)

〈Fig. 19〉 'The Human Laundry Service'
(Vibskov & Wiper, 2012, p. 199)

〈Fig. 20〉 'The Eat'
(Vibskov & Wiper, 2012, p. 186)

개념적 주제를 구상하고 이러한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무대 위의 조형물을 만들어 무대 세트를 디자인한다. 그의 컬렉션의 재미있는 디자인 요소는 종종 컬렉션 주제에 의해 디자인된 무대 인스톨레이션과 같은 맥락에서 디자인된다. 예를 들어 'The Transparent Tongue'(2013년 S/S)에서의 혀의 미표는 의상의 도트 모티브로 표현되었다.

2) 초현실주의적 무대설치

데이즈드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업에 있어 초현실적, 환상적 세계가 반복적 주제임을 인정했는데(Prior, 2013) 그러한 초현실적 무대를 만들기 위해 기묘하고 실험적인 장치들이 제작된다. 먼저 그는 인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인체의 일부분을 오브제로 대형화하거나 군집화시켰다. 'The Big Wet Shiny Boobies(2007 S/S)'(Fig. 21)에서는 가슴 조형물을 여러 개 제작하여 막대에 꽂은 런웨이를 만들었고 'The Transparent Tongue(2013 S/S)'(Fig. 22)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기관으로서 혀(Prior, 2013)를 선택하여 검은 색 혹은 뒤덮인 핑크색 기둥 구조물 속에서 모델들의 머리와 팔이 안에서 툭 튀어나오는 매우 이상한 혀를 제작하였는데, 그는 혀가 인체의 청소기(cleaner) 역할을 하는 것에 흥미가 있었다고 했다(Olivier, 2012). 인체 오브제뿐만 아니라 초콜릿 모양의 부표('The Last Pier Pandemonium(2011 S/S)'), 막대형태의 민트('The Mint Institute (2008

F/W)'), 장갑('The Messy Massage Class(2015 F/W)') 등 주제와 관련이 있는 상징적 조형물을 군집화시켜 강조하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조형 공간을 창조해낸다.

이외에도 빙스코브의 초현실적 주제는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전위적인 색상을 사용한다거나 착시를 일으키는 공간, 스토리가 있는 공간에서의 인스톨레이션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The Land of the Black Carrots(2007 F/W)'(Fig. 23)에서 검은 색 당근이 심겨진 노란 색 땅을, 'The Bathtub Observer(2014 S/S)'에서는 노랑과 오렌지 색 헤어 불이 전반적으로 부착된 거대한 다이아몬드 프린트의 목욕통을 만들고 배경과 형태의 시각적 착시를 보여주었다. 'The Solar Donkey Experiment (2010 S/S)'에서는 풀이 길고 고목이 있어 마치 마법 판타지와 같은 장면을 갖고 있는 공원 중앙에서 쇼를 진행했는데, 입구로부터 쇼 장이 있는 공원까지 약 500미터 통로를 따라 프린지 프로젝트와 의상들을 전시했고 관객들에게 이 모든 이상한 요소들의 해프닝을 모두 발견할 수 있도록 작은 지도를 주었다(Vibskov & Wiper, 2012). 이처럼 빙스코브의 컬렉션은 초현실주의 주제를 잘 보여주는 인스톨레이션 장치들로 무대를 세트하고 관객과의 소통을 유도하는 작업들로 촘촘하게 기획된다.

〈Fig. 21〉 'The Big Wet Shiny Boobies'
(Firstview Korea, n.d.-f)

〈Fig. 22〉 'The Transparent Tongue'
(Graham, 2012)

〈Fig. 23〉 'The Land of the Black Carrots'
(Firstview Korea, n.d.-g)

3) 다감각의 퍼포먼스와 결합된 무대 설치

뵘스코브의 패션 인스톨레이션의 또 다른 특성은 시각, 청각, 촉각적 무빙 설치물을 설치해 다감각적 퍼포먼스를 시도하는 설치 작업이라는 것이다. 뵘스코브는 일렉트릭 밴드 트레몰러(Trentmøller)의 드러머로서 재능을 살려 'Fantabulous Bicycle Music Factory(2008 S/S)', 'The Shrink wrap Spectacular (2012 F/W)' 등에 거대한 음악 기계를 만들어 모델과 상호작용에 의해 음향을 생산해내는 인스톨레이션과 그를 통한 퍼포먼스를 유도한다.

2008년 S/S 컬렉션 'Fantabulous Bicycle Music

Factory'〈Fig. 24〉에서는 장 텅젤리(Jean Tinquely)로부터 영감을 얻어 10개의 낡은 고물 자전거를 모아 여기에 두 개의 드럼을 연결시킨 거대한 조형물을 제작했는데, 모델들이 자전거에 올라타 작동시키면 알 수 없는 이상한 소음을 만들어진다(Vibskov & Wiper, 2012).

헨릭 뵘스코브가 만든 악기 설치 작업은 후에 'The Shrink wrap Spectacular (2012 F/W)'〈Fig. 25〉에서 또 등장했다. 이번에는 랩으로 포장 후 하얀 페인트로 칠을 한 거대한 음악 기계를 만들었는데 모델들이 걸을 때마다 전자센서가 있는 드럼을 건드려 다

〈Fig. 24〉 'Fantabulous Bicycle Music Factory'
(Vibskov & Wipe, 2012, p. 51)

〈Fig. 25〉 'The Shrink wrap Spectacular'
(Vibskov & Wipe, 2012, p. 206)

〈Fig 26〉 'The Mint Institute'
(Henrik Vibskov, n.d.)

양한 우연의 음향을 만들어냈다. 한편 'The Mint Institute(2008 F/W)'(Fig. 26)에서는 거대한 민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민트 향을 분사했으며, 민트 음료수를 제공해서 관객들이 민트를 시각, 후각, 미각을 통해 동시에 경험하게 했으며 독일어를 구사하는 쇼 스태프들이 실험실 유니폼을 입어 민트 연구소라는 제목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해냈다.

또한 설치물들은 한 공간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때로 움직임을 만들어내 시간의 흐름, 프로세스를 경험하게 만들기도 한다. 'The Slippery Spiral Situation (2010 F/W)'에서는 크롬, 거울 등과 함께 나무 조각을 만들어 회전시켰으며 'Panopticon and on(2012 S/S)'에서는 거실, 침실, 욕실, 창고로 구성된 열린 구조물을 움직여 판옵티콘이라는 주제를 관객들이 경험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뵘스코브의 패션쇼 무대의 세트 디자인으로서 인스톨레이션은 참여하는 모델, 관객들이 다감각적 조형 설치물을 같은 공간에서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다. 뵘스코브는 그의 쇼를 통해 “관람자에게 잠시 동안 시뮬레이션된 감각, 생각, 음향, 시각, 구조 속으로 들어갔다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Prior, Aug 13, 2013)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헨릭 뵘스코브 컬렉션의 패션 인스톨레이션의 표현특성을 보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이제 뵘스코브의 쇼에 선동적인 인스톨레이션이 없다면 더 이상의 뵘스코브 쇼가 아니다. 모델들은 그들의 주변 배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독창적인 차원을 준다.”(Tudor, June 18, 2013)고 했듯이 뵘스코브는 브랜드 런칭 이래로 인스톨레이션을 기대하게 만드는 패션 컬렉션을 발표하고 있다. 뵘스코브에게 있어 패션, 미술, 음악은 모두 하나이며 뵘스코브의 패션쇼는 종합 예술이다.

다른 여러 디자이너들 역시 스펙터클한 패션쇼를 발표하기 위해 무대 설치 작업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헨릭 뵘스코브 컬렉션 무대에서의 인스톨레이션의 경우 이들과의 차별점이 있다. 헨릭 뵘스코브의 컬렉션 무대의 패션 인스톨레이션은 이동할 때마다 장소에 따라 다르게 설치되는 장소성, 가변성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뵘스코브의 경우 파리뿐만 아니라 코펜하겐, 그 외의 기타 다른 장소에서 마치 순회공연과도 같이 패션쇼를 여러 번 진행하는 적이 종종 있다. 때로 작업실에서 발송한, 이전 무대 인스톨레이션 작품들이 도착하지 않을 때도 있고 장소의 특이성 때문이기도 해서 같은 컬렉션이지만 장소에 따라 다른 무대 인스톨레이션을 보이기도 한다. 2011년 S/S 컬렉션 'The Last Pier Pande-

<Table 1>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Henrik Vibskov's Fashion Installation

Conceptual theme approa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ceptual Theme • Metaphoric message • Multi-vocal meaning • Fantasy and fiction narratives
Surrealistic scenograph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location of surrealistic object • Fragmentation of body parts • Change of colors • Clustering artistic & symbolic objects • Visual trickery
Setting of multisensory perform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ving installations which stimulate five senses • Interaction between models & spectator

〈Fig. 27〉 Henrik Vibskov's site-specific installation (Paris, Copenhagen, Milan)
(Vibskov & Wiper, 2012, p. 100, pp. 102~103, pp. 128~129)

〈Fig. 28〉 Thom Browne, 2011/12 F/W Men's, Chanel,
2012/13 F/W, Pairs/Bombay

〈Fig. 29〉 Henrik Vibskov's DIY installation process

(Firstview Korea, n.d.-h, Quin, 2011. Henrik Vibskov - *Fabricate*, p. 20, p. 54)

monium'은 종말론 이후의 세상으로의 귀환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되었는데 파리, 코펜하겐, 그리고 밀라노에서 같은 내용의 컬렉션이 발표되었다. 장소성(site-specificity)을 반영하여 주제, 오브제의 방향성은 유지되 공간에 설치되는 방식, 관객과의 관계 형성 방식은 다르게 설치되었다(Fig. 27).

헨릭 뵘스코브의 패션 인스톨레이션은 패션쇼의 보조 무대장치라기보다는 조형적인 아트 인스톨레이션으로 예술성과 패션성을 동시에 가질 뿐만 아니라 그의 개념적 주제의 패션 디자인을 선보이는데 효과적인 패션 프레젠테이션이라 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 무대 세트를 위한 인스톨레이션은 다른 디자이너들의 상황, 장면 연출의 무대 세트나 쇼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인스톨레이션과는 달리 인스톨레이션과 쇼가 동등한 비중을 갖고 하나의 조형작품으로도 존재 가능한 비중을 갖는다. 뵘스코브는 “나는 내 설치와 컬렉션 사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서로 상호 참조(cross-reference)할 수 있지만 서로 분리되어 존

재할 수도 있다(Vibskov or Wagner, n.d.).”고 했다.

예를 들어 아방가르드한 무대 세트 디자인을 잘 보여주는 톰 브라운(Thom Browne)이나 샤넬의 컬렉션에서의 식탁(Fig. 28)과 뵘스코브의 'The Eat' 컬렉션의 식탁(Fig. 20)을 비교해보면 전자의 상황 연출을 위한 무대 세트 작업에 비해 뵘스코브의 설치에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오브제, 컬러로 구성된 식탁이다. 또, 뵘스코브는 일상의 고물, 재료들을 이용해 다양한 조형적 설치물을 만드는데, 그의 인스톨레이션은 다른 예술 영역의 전문가와 콜라보레이션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DIY 방식으로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설치작업이며 디자인 팀 내부의 아날로그적 수작업 과정(Fig. 29)을 거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쇼 무대를 구성했던 인스톨레이션 작업들은 그 자체가 인스톨레이션으로서 존재 가치를 갖게 되어 뮤지엄, 갤러리와 같은 미술 공간, 뵘스코브 매장과 같은 상업 공간에 각 공간의 맥락에 맞게 재 설치되곤

한다. 여러 컬렉션의 설치물을 모아 순회 전시한 '100 Days'라는 팝업 스토어도 그러한 예 중 하나이다. 런웨이에서의 인스톨레이션은 일반 관람자들이 일상의 맥락에서 새롭게 탐구하고 해석될 수 있게 재 설치되었다.

IV. 결론

패션 인스톨레이션은 오브제, 공간, 관객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구축된 현대미술의 인스톨레이션 아트가 경계 확장의 성격에 따라 패션 디자인에 적용되어 나타난 패션 프레젠테이션이다. 덴마크 출신 디자이너 헨릭 뵘스코브는 음악, 미술, 패션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패션 프레젠테이션의 영역을 확장시켜왔으며 뵘스코브 컬렉션에 나타난 인스톨레이션은 디자이너 자신의 일상 경험과 사회 이슈에 대한 디자이너의 생각을 담은 개념적 주제를 갖고 초현실적 무대 세트 디자인, 퍼포먼스와 연결되는 다감각적 설치라는 표현 특성을 보였다. 패션쇼 무대에 인스톨레이션을 보이는 다른 실험적 디자이너들에 비해 그의 패션쇼의 인스톨레이션은 상황, 장면 연출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인스톨레이션과는 달리 인스톨레이션과 쇼가 동등한 비중을 갖고 하나의 조형작품으로도 의미있는 인스톨레이션, 타 영역의 전문가와의 협업보다는 DIY 방식을 거친다는 차별점을 갖는다.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되는 패션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주로 실험적인 여성복 컬렉션을 주도해온 몇몇 디자이너 사례에 집중된 연구들이 많았다. 최근 스칸디나비아 패션과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스칸디나비아 트렌드에 따라 이 지역의 디자이너에 대한 연구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며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하나의 학문적 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또한 뵘스코브의 작업이 디자이너들의 예술로서 패션 프레젠테이션의 창조적 영역을 확장시키는 또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

- Britain Creates 2012 (2012). Retrieved from <http://www.britaincreates.com/presentation.aspx?pid=11>
- Chae, W. S. (2005). *A study on the artistic changes in environmental sculpture in digital ages*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Cho, E. (1993). *A study on installation in the 20th century art*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Republic of Korea.
- Davies, H. (2008). *100 New Fashion Designers*. London, England : Laurence King Publishing Ltd.
- Firstview Korea (n.d.-a). Retrieved from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PhotoImageViewPop.aspx?Season=SS012&City=CD001&Event=EV001&Designer=430>
- Firstview Korea (n.d.-b). Retrieved from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PhotoImageViewPop.aspx?Season=SS029&City=CD001&Event=EV001&Designer=438>
- Firstview Korea (n.d.-c). Retrieved from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PhotoImageViewPop.aspx?Season=SS030&City=CD001&Event=EV001&Designer=438>
- Firstview Korea (n.d.-d). Retrieved from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PhotoImageViewPop.aspx?Season=SS022&City=CD001&Event=EV002&Designer=226>,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PhotoImageViewPop.aspx?Season=SS031&City=CD001&Event=EV002&Designer=226>,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PhotoImageViewPop.aspx?Season=SS030&City=CD001&Event=EV002&Designer=226>,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PhotoImageViewPop.aspx?Season=SS018&City=CD001&Event=EV002&Designer=226>
- Firstview Korea (n.d.-e). Retrieved from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PhotoImageViewPop.aspx?Season=SS028&City=CD001&Event=EV002&Designer=226&Cate=CC001>
- Firstview Korea (n.d.-f). Retrieved from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PhotoImageViewPop.aspx?Season=SS013&City=CD001&Event=EV002&Designer=226>
- Firstview Korea (n.d.-g). Retrieved from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PhotoImageViewPop.aspx?Season=SS014&City=CD001&Event=EV002&Designer=226>
- Firstview Korea (n.d.-h). Retrieved from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PhotoImageViewPop.aspx?Season=SS022&City=CD001&Event=EV002&Designer=2696>
- Graham, O. Henrik Vibskov Desicates New Collection to a Giant Tongue (2012, July 2). Retrieved from <http://www.thefader.com/2012/07/02/henrik-vibskov->

- dedicates-new-collection-to-a-giant-tongue
- Gundoft, D. (2011). Henrik Vibskov F/W11 [Interview with Henrik Vibskov]. Retrieved from <http://www.dazeddigital.com/fashion/article/9546/1/henrik-vibskov-a-w11>
- Hauser & Wirth (2010). Retrieved from <http://www.hauserwirth.com/exhibitions/743/louise-bourgeois-the-fabric-works/list-of-works/10/>
- Henrik Vibskov - Fabricate (2015). Seoul, Republic of Korea : Daelim Museum.
- Henrik Vibskov. (n.d.). In *Wikipedia online*. Retrieved from http://en.wikipedia.org/wiki/Henrik_Vibskov
- Henrik Vibskov. (n.d.). Retrieved from <http://www.henrikvibskov.com/home.php>
- Holographic Diesel Fashion Show (2007, July 4). Retrieved from http://ivdesign.co.kr/bbs/board.php?bo_table=etrend&wr_id=4024
- Hong, H. Y. & Kim, Y. I. (2014).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fashion shows using digital imag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4(6), 1-15.
- Huh, G. Y. (2011). *A study on the fashion presentation*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Hwang, G. (2008). *A study on fashion show's stage design since 2000*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Daegu, Republic of Korea.
- Installation. (n.d.). In *Wikipedia online*. Retrieved from <https://ko.wikipedia.org/wiki/%EC%84%A4%EC%B9%98%EB%AF%B8%EC%88%A0>
- Installation. (n.d.). In *World Art Dictionary online*.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94522&cid=42642&categoryId=42642>
- James Jean x Prada (2010, October 28). Retrieved from <https://themidsummerproject.wordpress.com/2010/10/28/james-jean-x-prada>
- Jang, R. Y. & Yang, S. H. (2011). Communication and exhibition project - Focused on fashion exhibition design by Maison Martin Margiela.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6), 1302~1319.
- Kang, H. W. (2011). *Digital fashion installation based on interactivity : Focused on a pattern development application*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Kim, H. (2004). A study on intertextuality with other domains in the 21C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4(2), 105-119.
- Kim, J. H. & Kim, Y. S. (2013). Expression type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space directing at Chanel fashion show.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7(6), 809-826, doi/10.5850/JKST.2013.37.6.809.
- Kim, M. S. (201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VMD in commercial space applied art collaboration*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Kim, S. (2008). *A study on work of space design for displaying a show window*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Sungnam, Republic of Korea.
- Ko, K. & Ee, H. (2011). Multi-narrative in site-specificity of installation art. *Th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raft*, 14(4), 10-20.
- Lee, S. M. (201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Space Embodying in Contemporary Installation Art*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Sungnam, Republic of Korea.
- Maison Martin Margiela 20 The Exhibition [Exhibition review] (2010, June 4). Retrieved from <http://blog.trendstop.com/2010/06/maison-martin-margiela-20-the-exhibition/>
- Nnadi, H. (2009, September 18). Feature: Henrik Vibskov Interview. Retrieved from <http://www.thefader.com/2009/09/18/feature-henrik-vibskov-interview>
- Oliver, W. (2012). Henrik Vibskov Menswear S/S13. Retrieved from <http://www.dazeddigital.com/fashion/article/13858/1/henrik-vibskov-menswear-s-s13>
- Prior, T. (2013) Henrik Vibskov goes beyond. Retrieved from <http://www.dazeddigital.com/artsandculture/article/15874/1/henrik-vibskov-goes-beyond>
- Quin, E. (2011, December 14). Retrieved from http://chanel-news.chanel.com/ko_KR/home.author.elisabeth-quin.html
- Smith, M. O. & Kubler, A. (2013). *Art/Fashion in the 21st Century*. London, England : Thames & Hudson.
- Tan, K. (2011, September 10). Henrik Vibskov designs costumes for War Sum Up. Retrieved from <http://trendland.com/henrik-vibskov-designs-costumes-for-war-sum-up/>
- The Multi-tasker [a conversation with henrik vibskov] (2011, September 5). Retrieved from www.berlinartjournal.com/issue/henrik-vibskov-art-and-other-vanities
- Tudor, E. (2013, January 17). Henrik Vibskov-menswear -Fall Winter 2013-Paris. Retrieved from <http://nowfashion.com/2013-01-17-henrik-vibskov-menswear-fall-winter-2013-paris-review-711.html>
- Vibskov or Wagner (n.d.). Retrieved from <http://www.interviewmagazine.com/art/vibskov-or-wagner-#/>
- Vibskov, H. & Wiper, A. P. (Eds.) (2012). *Henrik Vibskov*. Berlin, Germany: Gestalten.
- Wolff, R. (2006, November 9). How much is that eye in the window? New Work Magazine. Retrieved from http://nymag.com/daily/intelligencer/2006/11/how_much_is_that_eye_in_the_wi.html
- Yang, S. I. & Lee, J. K. (2013). A study on object methods through case analysis of fashion exhibition space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the Spatial Design*, 9(1), 125-136.